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Student's Major Choice Motive on the Job Choice in the Local University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volunteering activities -

Gil-Hyun Kang*

Abstract

In this paper, I propose some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by analyzing moderating effects of volunteering activity in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welfare major choice and their job choice. For the purpose of the goal of this study, I surveyed 242 university students in 2~4 grades majoring social welfare in Gwangju and South and North Jeolla Provinc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personal motive on choosing a major affects the occupational aptitude & interests and economic feasibility of career when they choose their jobs. However, the social motive didn't affect the occupational aptitude & interests and economic feasibility of career. It means that they didn't choose their majors considering their aptitude & interests, but chose them by following the advice of the surrounding people. Also, moderating effects of volunteering activity was not significant, which means that volunteering period and schedules are too short and tend to be operated as a mere formality.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so that they have the correct major selection and career op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 Keyword : major choice motive(personal motive, social motive), volunteering activity, job choice

I . Introduction

최근 정부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방안을 강조하며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인재 전형 실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에 대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에 이르는 지방대학 소재 대학생들은 직업선택에 대한 확실한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취업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비수도권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5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학 전공자 전국 취업률은 56.4%로 나타났다[1].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는 전공과 직업선택의 변화에 따라 학과 간의 희비가 교차되고, 취업률이 힘든 전공학과들을 중심으로 학과 구조 조정

이 이루어지고 있다[2]. 최근에는 지방대와 전문대 상당수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퇴출 위기까지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지방대학 취업률 저하에는 전공 교육의 현실도 반영되지만 사전에 “전공 선택과 직업선택에 외재적인 영향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 본인이 원해서 전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나 친구 등의 권유로 전공을 선택하였기에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역 특성에 걸맞은 전공학과 개설이 지방대에 그리 많이 있지 않는 것도 원인일 수도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유호는 장래 희망이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공 부적응자가 발생하여 “전공과는 무관한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였다[3]. 임문정은 전공선택 과정에서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을 고려한 것보다 합격 위주의 진학 결정을 함으로써 상당수의 학생들이 “전공과의 불일치 경험

• First Author: Gil-Hyun Kang, Corresponding Author: Gil-Hyun Kang

*Gil-Hyun Kang(opsa@hanmail.net),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 Received: 2015. 09. 30, Revised: 2015. 10. 05, Accepted: 2015. 10. 20.

을 하거나, 전공과의 불투명한 취업 전망 등”의 이유로 전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였다[4]. 이는 학교와 학과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나서 스스로 선택하기 이전에 “수능 점수에 맞추거나 원서 마감일에 주위 사람들의 권위에 밀려서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5]. 그런데 정진희는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은 전공교과 과목 외에 별도의 진로준비는 소홀히 하면서 마치 “사회복지사 2급 무시험 자격증 취득을 취업자격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6]. 또 다른 연구에서 Osipow는 부모가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고, Wanberg의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긍정적 애착과 지각에서 진로를 결정”한다고 하였다[7][8].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들은 전공과 직업선택에서 다양한 이론들을 도출하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 재학생들은 실천 현장에서 사회봉사활동과 현장실습을 통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는 직업의 경제성, 장래성 등의 경제적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는 4년 동안 숙련 과정을 통해 축적된 전문 기술의 실효성을 잃게 되면서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선택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원인 중에는 사회복지사 40.7%는 월평균 급여가 2013년 “최저생계비 4인 가족 1,546,399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9].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본인 적성과 상관없이 수도권 대학의 인기가 있고 경제적인 학과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전문직은 외면당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함의를 규명하기 위해 대학교 전공학과를 선택할 때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를 살펴보고, 이들 요인이 “적성 및 취미에 걸맞은 직업을 선택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공과 관련이 없어도 보수가 많은 직업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 재학 중 “사회봉사활동은 직업선택 과정에서 조절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전공선택동기와 직업선택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Major choice motive

전공 선택은 다양한 심리적 상태에서 교차하면서 ‘내재적인 개인적 동기와 외재적인 사회적 동기’에 의해 지식을 비교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가장 올바른 전공 선택은 자신이 잠재되어 있는 적성, 흥미 또는 재능에 부합되는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에 맞춰 자율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조건이나 현실에 부딪혀 원하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복지학은 ‘인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학문’으로서 전공 선택 시 ‘자신의 인간 중심과 가치관, 또는

이타주의 성격’의 인성이 가장 먼저 앞서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진남 등은 “전공 선택은 진로목표, 자기 이해(흥미, 가치관, 성격, 능력 및 소질), 환경(가정적 환경, 사회적 환경),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대학정보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 가능한 전공을 고르는 행위”라고 하였다[10]. 임언 등은 전공 선택의 개념을 “학생들이 각 학과의 특성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자기 이해를 도움으로써 자신의 특성과 전공의 특성이 최대한 일치하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11]. 같은 연구자 임언은 대학의 전공을 선택할 때 88%의 학생들이 “부모, 교사, 친구의 영향을 받았으며, 본인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8.7%로 나타났다[12]. 이러한 결과는 전공 적응에 실패하고, 뒤늦게 전공을 바꾸으로써 대학교육의 저효율성과 사회진출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공을 선택할 때 우려되는 요인을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개인적 동기를 적성, 흥미, 재능, 장래 직업을 고려한 내재적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이는 전공 선택 과정에서 전공과 자신의 적성 및 흥미가 일치하지 않을수록 전공 선택에 대한 동기는 물론 전공과 동일한 직업선택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동기로서 전공의 인기도, 사회적 인식, 주변의 권유, 성적(합격 가능성)의 외재적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의지와 달리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전공을 선택하므로 전공교육 적응에 실패하고 결국, 재 입시를 통해서 전공을 바꾸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동기에 의해 전공학과와 직업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아 많은 스트레스 발생과 직장에서는 잦은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2. Job choice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독특한 직업관을 통하여 성취욕, 자존감, 삶의 의미, 사회 공헌, 경제적 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직업을 통해 구현하고 싶은 욕망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Konrad는 호텔외식 경영학의 연구에서 산업화의 가속으로 인해 주어지는 물질적 풍요는 현대인이 직업적 가치를 경제적(급여)인 관점보다 내재적(도전의 기회, 업무에 대한 흥미 등)인 차원에서 찾고 있다고 했다[13]. 그러나 김지혜 등은 관광산업 직업 평가에서 현대사회에서의 직업은 경제적 수단임과 동시에 내재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해 주는 도구로 작용한다고 하였다[14]. 또한 양필수 등은 관광통역 안내사의 연구에서 개인적 보장, 발전 기회, 적성 요인을 들 수 있으며, 근로시간이 자유롭고 소득이 높은 직업이면서, 자기개발의 기회가 많은 직업을 강조하였다[15]. 반면, 최경석은 일본 대학생들과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은 직업을 경제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는데 반

해, 일본 대학생들의 희망 직업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16]. 이 밖에도 감상목은 공무원 직업선택 동기를 “직업안정성, 채용 공정성, 공직의 보람, 사회적 평가(신분보장)”로 보았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과생들의 직업선택에는 다음과 같은 내외 제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첫째, 전공을 선택할 때 적성 및 흥미이다. 스스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일과, 어려운 일이라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은지 살펴보았다.

둘째, 직업 경제성이다.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업이라도 급여가 많은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전공과 동일한 직업에서 급여를 많이 주는 직업으로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급여를 많이 받는 직업을 선호하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3. Volunteering activity

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은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술, 능력과 재능 등을 향상시키고, 미래 사회적 공공성과 도덕성을 함양하며, 직업가치관 형성을 영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이기주의 성향에서 벗어나 이타성과 책무성을 지향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봉사활동 경험으로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직업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처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인권실천가의 사명의식을 배양시키고, 국가사회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에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선행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김범수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적·사회적 의미”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의미는 “개인의 시간, 기술, 지식 및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이용하는 것이며, 봉사자 자신에게 생활의 의미를 찾게 해 줌과 동시에 자긍심과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18]. 또한 “사회적 의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공공복지를 위하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하게 된다”라고 보았다. 특히 본문에서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와 사회봉사(Social Service)의 용어”로 각각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다[19]. 그 밖의 연구에서 자원봉사를 살펴보면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적”, “교육적”, “사회적”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20].

첫째, 개인적 필요성이다. “인간존중 정신과 태도 형성, 사회성 개발과 자아실현, 자신감과 지도력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 형성, 보람 있는 여가생활 등이 진로선택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둘째, 교육적 필요성이다.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이론주의적인 학교 교육을 떠나 체험교육으로 추후 성인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셋째, 사회적 필요성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학교와 지

역사회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어진 교훈으로 지역사회문제를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지하려는 태도를 자발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사회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도자 인사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사회복지 전공자들의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직업선택 기준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직업의 책임성, 헌신성, 직업가치관 등의 실천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회복지전공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부족한 현실이며 다양한 기관에서의 실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1995년 한 해에 성인의 50%가 사회봉사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시간에 달했고, 약 8백만 명의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간에 맞먹고, 금액으로는 2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였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전공지식의 이론을 적용해보고,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전공 분야를 경험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 선택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III.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선택동기가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봉사활동이 조절역할을 하는지에 관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의 전공선택동기 요인을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의 직업선택요인에는 적성 및 흥미, 직업경제성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조절변수를 사회봉사활동을 설정하였다. 이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고, 연구모형에 근거한 연구가설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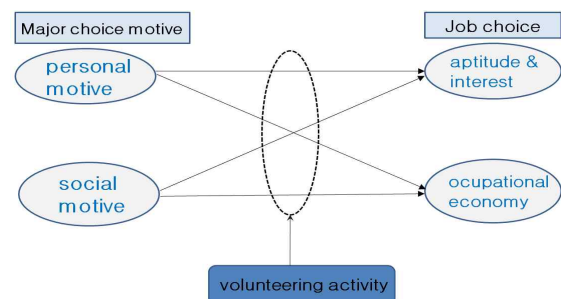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Table 1. Establishing Hypothesis

Label	Hypothesis
Research hypothesis 1	1-1. Personal motiv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aptitude and interest
	1-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titude and interest and personal motivations of a university student will be control effects of volunteering.
Research hypothesis 2	2-1. Personal motiv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will have to make a positive impact on the occupational economy.
	2-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ccupational economy and personal motivations of a university student will be control effects of volunteering.
Research hypothesis 3	3-1. Social motiv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will have to make a positive impact on the aptitude and interest
	3-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titude and interest and social motivations of a university student will be control effects of volunteering.
Research hypothesis 4	4-1. Social motiv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will have to make a positive impact on the occupational economy.
	4-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ccupational economy and social motivations of a university student will be control effects of volunteering.

IV. Empirical Analysis

1. Data Collection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4년 3월 10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 광주, 전남북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2~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한 설문지는 총 270부 중 부실한 설문지 28부를 제외하고 24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Test of Measurement Scale

본 연구에서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도구를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정확성과 대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들이 측정하려고 의도하였던 개념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요인분석은 문항들을 데이터 축소(Data Reduction)하여 독립변수 2개요인과 종속변수 2개, 조절변수 1개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요인의 회전은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여 <표 2>는 요인 적재값을 표시하였다.

독립변수인 개인적 동기는 4개 설문항목, 사회적 동기 4개 설문항목이며, 조절변수인 봉사활동 효과는 6개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직업선택의 기준은 적성 및 취미 3개 설문항목이며, 직업 경제성은 3개의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KMO (Kaiser-Meyer -Olkin): .788, χ^2 : 2319.884, df는

190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요인값은 대부분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변수의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 Factor analysis

variable		1	2	3	4	5
personal motive	v1	.171	.840	-.091	.177	-.048
	v2	.184	.862	-.159	.044	-.094
	v3	.243	.803	-.081	.146	.029
	v4	.138	.732	-.068	.051	.141
social motive	v1	-.042	.237	.015	-.080	.835
	v2	-.017	.248	-.034	-.014	.835
	v3	.149	-.241	.153	.005	.616
	v4	-.023	-.252	.229	-.020	.566
aptitude & interest	v1	.102	.160	-.005	.863	-.089
	v2	.142	.120	.030	.885	.017
	v3	.289	.058	-.164	.642	-.040
occupational economy	v1	-.089	-.122	.821	-.018	.125
	v2	-.068	-.122	.903	-.089	.009
	v3	-.013	-.080	.854	-.016	.141
volunteering effects	v1	.651	.049	-.085	.288	.140
	v2	.677	.133	-.022	.255	-.006
	v3	.755	.223	-.041	.042	.015
	v4	.821	.122	.017	.024	.041
	v5	.788	.199	-.066	-.049	-.022
	v6	.741	.063	-.048	.212	-.072
eigen value		3.590	3.077	2.387	2.210	2.198
% variance		17.95	15.38	11.93	11.05	10.98
% cumulative variance		2	5	4	2	8
		17.95	33.33	45.27	56.32	67.31
		2	7	0	2	0

두 번째로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신뢰도 분석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독립변수인 개인적 동기 .873, 사회적 동기 .690, 조절변수인 봉사활동 .858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적성 및 취미 .767, 직업경제성은 .851로 모든 변수에서 Cronbach α 이 .6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nalytical Result of Reliability

variable	number of items	Cronbach -Alpha	deleted items
independent variable	personal motive	.873	no
	social motive	.690	no
moderating variable	volunteering activity	.858	no
dependent variable	aptitude & interest	.767	no
	occupational economy	.851	no

3. Research Model Verification

3.1. Correlation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따른 주요 구성개념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봉사활동 효과, 적성 및 취미, 직업경제성 등 5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Person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변수는 적성 및 취미와 봉사활동 효과($r=.392$), 개인적 동기와 사회봉사활동($r=.387$)이며, 개인적 동기와 적성 및 취미($r=.293$)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variable	personal motive	social motive	aptitude & interest	occupational economy	volunteering activity
personal motive	1.00				
social motive	.016	1.00			
aptitude & interest	.293**	.081	1.00		
occupational economy	.256**	.227**	.139*	1.00	
volunteering activity	.387**	.023	.392**	.139*	1.00

* : $p < .05$, ** $p < .01$

3.2. Test of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직업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로서 도출된 전반적인 부합도(Overall model fit) 지수를 <표 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카이제곱값 192.228, 자유도(df) 72, χ^2 에 대한 p 값 0.000으로 나타났고, 다른 부합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기초부합지수(GFI), 조정부합지수(AGFI), 표준적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등이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났다.

Table 5. Result of fit analysis

label	absolute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					parisimo		
	χ^2 (p)	d GFI	RMS EA	RM R	NFI	RFI	IFI	TLI	CFI	AGFI
fit index	192.228 8 (.000)	7.901	.067	.040	.907	.903	.912	.906	.912	.894
optimal criteria	-	above	below	above	.90	above				.90 above

4. Test of research hypothesis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직업선택 기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 <표 6>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개인적 동기는 적성 및 취미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1에서 개인적 동기(표준화계수 .336, p 값 .000)는 적성 및 취미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개인적 동기는 직업경제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2에서 개인적 동기는 (표준화계수 .323, p 값 .000)은 직업경제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첫째,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사회적 동기는 적성 및 취미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3에서 사회적 동기(표준화계수 .114, p 값 .133)는 적성 및 취미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사회적 동기는 직업경제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4에서 사회적 동기는 (표준화계수 .136, p 값 .077)은 직업경제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result of hypothesis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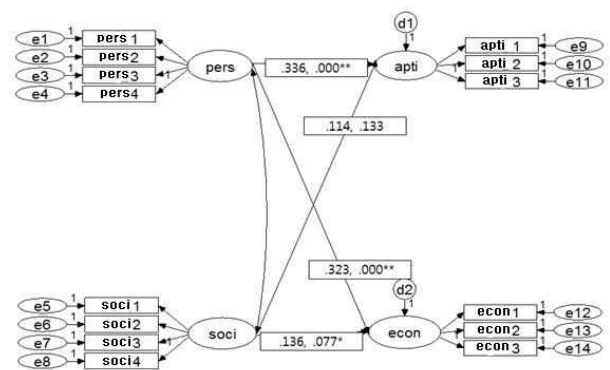
hypothesis	path	coefficients		S.E	C.R	p	accept/reject
		B	beta				
1	pers→apti	.214	.336	.054	3.949	.000*	accept
2	pers→econ	.407	.323	.097	4.186	.000*	accept
3	soci→apti	.119	.114	.079	1.502	.133	reject
4	soci→econ	.280	.136	.158	1.771	.077	reject

pers: personal motive, soci: social motive, apti: aptitude and interest, econ: occupational economy

** : $p < .01$

결론적으로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직업선택 기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서 개인적 동기는 직업선택 기준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개인적 동기는 적성 및 취미에 가장 영향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직업선택 기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 <그림 2>와 같다.



** $p < .01$, Path coefficients, Significant probability

pers: personal motive, soci: social motive, apti: aptitude and interest, econ: occupational economy

Fig. 2. The result of hypothesis test

5. Moderating effects of volunteering activity

첫째, 사회복지과 학생의 개인적 동기는 적성 및 취미(표준화경로계수 : 높음 .330, 낮음 .153)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사회봉사활동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Delta\chi^2$ 값이 1.062이며, p값은 .303로 개인적 동기는 사회봉사활동 정도에 따라 적성 및 취미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없다.

둘째, 사회복지과 학생의 개인적 동기는 직업경제성(표준화경로계수 : 높음 .225, 낮음 .265)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사회봉사활동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Delta\chi^2$ 값이 .021이며, p값은 .884로 개인적 동기는 사회봉사활동 정도에 따라 직업경제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없다.

셋째, 사회복지과 학생의 사회적 동기는 적성 및 취미(표준화경로계수 : 높음 .201, 낮음 .046)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사회봉사활동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Delta\chi^2$ 값이 .016이며, p값은 .898로 사회적 동기는 사회봉사활동 정도에 따라 적성 및 취미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없다.

넷째, 사회복지과 학생의 사회적 동기는 직업경제성(표준화경로계수 : 높음 .409, 낮음 .068)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사회봉사활동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Delta\chi^2$ 값이 .280이며, p값은 .597로 사회적 동기는 사회봉사활동 정도에 따라 직업경제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없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과 학생의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에는 사회봉사활동 정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moderating effects of volunteering activity

hypothesis	unrestricted model						restricted model			difference
	path coefficients		C.R		p		χ^2/df	$\Delta\chi^2$	p	
	High	Low	High	Low	high	low				
1 pers → -1 apti	.330	.153	2.447	1.458	.014	.145	263.629 / 145	1.062	.303	no
2 pers → -1 econ	.225	.265	1.935	2.513	.053	.012	262.589 / 145	.021	.884	no
3 soci → -1 apti	.201	.046	1.529	.463	.126	.644	262.584 / 145	.016	.898	no
4 soci → -1 econ	.409	.068	3.038	.684	.002	.494	262.848 / 145	.280	.597	no

1. * : p ≤ .05, ** p ≤ .01
 2. pers: personal motive, soci: social motive, apti: aptitude and interest, econ: occupational economy
 3. Unrestricted Model : χ^2 : 262.568, df: 144, p= .000

V. Discussion and implications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 전공선택동기와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전공선택동기와 직업선택의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공선택동기의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를 살펴보고, 이들 요인이 적성 및 취미, 경제성 등을 고려한 직업선택에는 사회봉사활동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규명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동기에서 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은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고, 직업세계를 미리 체험할 수 있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였다. “단지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시간만 채우려는 의문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전공선택요인의 개인적 동기는 적성 및 취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설명하면 “개인적 동기란 자신이 전공 선택을 하였으므로 자신의 적성과 취미에 맞는 직업 선택”을 말한다. 즉, “자신이 적성과 취미만 맞으면 전공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타 직종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공과 일치된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보고자 하는 설문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어 기각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서병우는 최근에 대학생들이 졸업 후 전공을 살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났다[2].

셋째, 대학생의 개인적 동기는 직업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전공을 선택하여 직업을 고려할 때 전공과 불일치되어도 보수가 좋고 경제성에 따른 직업을 선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경석은 일본 대학생들과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은 직업을 경제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데 반해, “일본 대학생들은 희망 직업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16].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직업의식이 전문성보다 경제적인 면을 강조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대학생의 사회적 동기는 적성 및 취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원인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는 “성적에 맞추어서 전공을 선택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언의 연구에서는 대학의 전공을 선택할 때 88%의 학생들이 “부모, 교사, 친구의 영향을 받았으며, 본인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8.7%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주류를 이룰 수 있다[12].

다섯째, 대학생의 사회적 동기는 직업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성적에 맞추거나 주변의 권유에 의해 대학전공을 선택할 경우 추후 타 직종일지라도 보수가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는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봉사활동은 조절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설명하면 “사회봉사활동은 다양한 기관을 통해 자신의 전공지식의 이론을 적용해보고, 전공분야를 경험하며, 올바른 직업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본 연구결과 “사회복지 전공자가 미래직업관을 경험하기에는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너무 짧았으며, 봉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도 17.8%”에 이르렀다. 따라서 “사회복지전공 계열에 따른 사회봉사활동 참여 비율을 높이고, 전문성에 대한 도덕성과 가치관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전개된다.

VI. Conclusion

최근 많은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지역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에 입학과 편입을 위해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지방대학들 상당수는 학생 정원 미달로 운영난에 시달리며 퇴출 위기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여파로 교육부의 대학 정원 감축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학의 전공 교육과 진로 문제에 극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문헌들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공 설명회 등을 통해 신입생을 유치하기 전에 올바른 전공 선택과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나 형식적 과정에 그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전공교육을 체험하게 하거나 적성검사 등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둘째, 대학교 전공교육에 대한 과장광고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즉, “사회복지사 2급 무시험 자격증 취득을 취업자격증”으로 유사하게 보도를 한다거나, 또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면서 사회복지학과 전공을 유도하는 행위 등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대학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 개설이 미비하며, 타 대학의 유사한 전공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제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내용이 부재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이제는 전공교육 패러다임도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양적 교육”에서 “이용자 중심의 질적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의 평가 기준에서 비전공 취업률 비중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4년 동안 전공교육과 일치할 수 있는 취업률로 평가 기준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전공과 일치되지 않는 직업을 가질 경우 “업무 저하에 따른 스트레스 발생과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았다.

다섯째, 사회복지 전공의 특성상 사회봉사활동 제도는 필수 이수과목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자질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으며, 미래 직업을 경험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활동 제도가 형식에 불과한 학점 위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장래 직업의 진로를 악화

시키고 실업을 조장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대학의 학제에도 개선점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대학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동기 위주로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본인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의사결정이 존중되어야 함”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일부 지방대학에 제한되어 전공과 일치된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보고자 하는 설문은 유의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서 기각되었으나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가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에 편중된 연구이었으나 타 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차원적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집중되어야 한다.

끝으로 대학의 4년 간 전공교육으로 올바른 전문직업인을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진단하며 대안점을 제시할 수 있는 폭 넓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mployment rate situation of each major in university”, 2014.
- [2] seo byung woo, “The Effects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Vocation Choice Factors”, Korea employment career association 3, 65-81, Feb. 2013.
- [3] Kim, You ho,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Career Choice, Satisfaction, and Major Adjust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Health-Care Majors and Social Science Majors”,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9, 165-182, Oct. 2013.
- [4] Lim Moon Jeong, "a study of the selective motives and satisfaction extent of social welfare majors", Kang 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 [5] Hwang Mae Hyang, “The compromise Process in Decision Making of Postsecondary Education in Korea”, Seoul University Doctor's Thesis, 2002.
- [6] Jeong Jin hee,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Honam Univ. Ph. D. Thesis, 2012.
- [7] Osipow, S, H, Theories of CareerDevelopment (3r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3.
- [8] Wanberg, C, R., & Muchinsky, P. M.,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71-80, Feb. 1992.

- [9] Kang Gil hyun , “An Empirical Study on Determinants for Turnover Intentions of a Social Worker”,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6, 129-148, Apr. 2014.
- [10] Lee Gun Nam · Jyung Chyul Young, “The Development of College Major Selection Program Model f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1, 87-110, Jan. 2009.
- [11] Lim Eon · Son Yu mi, “Developing Scales for Major Decision-Making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Korea Research Institution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00.
- [12] Lim Eon, “Differences among Groups Classified Based on Social Supporters in Choosing College Majors ”,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27, 63-84, Mar. 2008.
- [13] Konrad, E, "Changes in Work motivation during transition: a case from Slovenia",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9, 619-635, Apr. 2000.
- [14] Kim Ji Hye · Chun Byung Gil, “Undergraduates' Occupation-Appraisal : Focus on Tourism Industry ”,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22, 105-123, Mar. 2007.
- [15] Yang Pil Soo · Oh Sang Hoon · Park Si Sa , “A Study on the Job Selection Motives and Satisfaction of Tourist Guides”,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1, 175-192, Jan. 2007.
- [16] Choi Kyung Suk, “Research on Vocational Motive and Vocational Activity” *Journal of Japanese Modern Association*, 27, 257-272, Jan. 2010.
- [17] Kim, San mook, “Select motives and forms of public officials”, *Korea Administrative Studies*, 14, 297-325, Feb. 2005.
- [18] Kim Beom soo, “Volunteer Ron” *Hakjisa*, 2007
- [19] Chae Seung hee, “The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Voluntary Activity on the Consciousness of University Students”, *Ho 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2.
- [20] Lee Kwang Ho et al,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the Community network for effective career search of Adolescents”,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2000.
- [21] Won Seok Jo, “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 *Yangseowon*, 2014.

Authors



Gil-Hyun Kang Received the Ph.D. degrees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Chosun University, in 2013. And currently serving as adjunct professor in faculty of Social Welfare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main interesting fields are social welfare and law, social welfare policy, Independent operating social welfare facilities.